

다니엘 보이드라는 프리즘

January, 2020 | 석헌혜 에디터

page 1 of 8

다니엘 보이드라는 프리즘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키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 내렸다. 그에 따르면 역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구성되는 현재의 거울이다. 다니엘 보이드의 작업은 마치 프리즘이 빛을 굴절시켜 다양한 색으로 분산시키듯 주류의 역사를 굴절시켜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역사를 부각시킨다.

Editor 석헌혜 도움국제갤러리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 호주 정부는 영국 선단이 시드니에 처음 정착한 1788년 1월 26일을 기려 이 날을 국경일인 '호주의 날'로 지정하고 매 년 성대하게 축하한다. 하지만 호주 원주민들에게 이 날은 '침략의 날'과 다름 아니다. 영국 이민자들은 호주를 개척했다고 주장하지만 호주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 땅을 침략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이 호주에 정착한 이후 학살과 전염병으로 호주 원주민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다니엘 보이드는 설치와 회화, 드로잉 작업을 통해 호주 원주민의 시각으로 호주와 서구 열강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그는 캔버스 위에 촘촘히 점을 찍는 특유의 기법으로 자신의 조상과 조상들이 모래 드로잉으로 남긴 주술적 형상을 그린다. 그리고 똑같은 기법으로 영국 여왕,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석고상 등을 그리면서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서구 주류 역사를 같은 무게로 제시한다.

게슈탈트 형태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능력은 전체를 부분들의 단순한 합 이상으로 인식한다. 그의 회화 작업을 볼 때도 같은 인지과정을 거친다. 그가 찍은 점들의 윤곽선을 따라 관객들은 저마다 마음 속에 완성된 형상을 그려낸다. 관객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라 완성된 형상은 제각각 다르고 그런 인지과정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받아들이는 시각과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역사를 차용하고 재해석해서 새롭게 제시하려는 그의 작업들은 예술을 통해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자 과거와 현재의 적극적인 대화이다.

다니엘 보이드는 지난 12월 부산 국제갤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 <항명하는 광휘>를 개최했다. 전시를 준비하며 한국을 처음 찾았다는 그는 한국인들도 식민지 시절 역사를 왜곡당하고 억압당한 경험이 있기에 자신의 작업에 더 잘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호주 원주민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작업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

호주 원주민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내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 작업은 나와 조상과의 연계성을 고찰하거든요.



© 2014 Dan Seltzer Inc. All rights reserved.

타자성을 탐구하고 호주의 특정환경을 묘사하면서 역사적 뿌리를 추적하는 작업이죠. 우리는 특정 시각에 의해 규정된 역사를 교육받잖아요. 하지만 개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체화한 역사관을 재구성하죠. 나는 작업에서 내 선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획일화되고 규범화된 역사, 강자에 의해 주입 받는 역사에 대항하기 위해서예요. 내 작업을 통해 관객들에게 대안적인 역사관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점이에요. 설치 작업도 그렇고 회화 작업에서도 뾰족한 점의 형태로 형상들을 표현하시잖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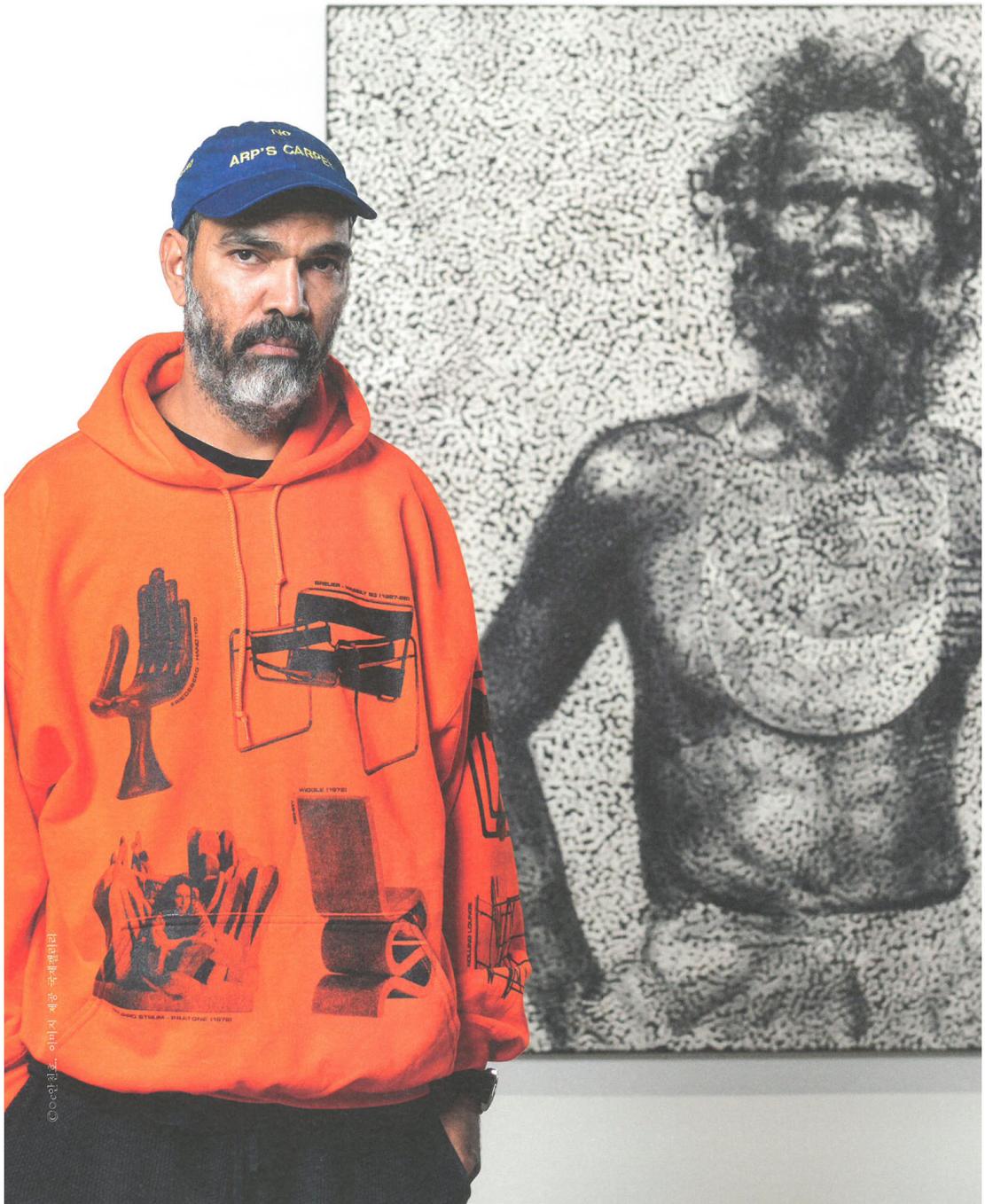
내 작업에 찍힌 점들은 저마다의 렌즈를 의미해요. 이 렌즈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표현하죠. 각 점 사이의 검은 공간은 기억이 소실되거나 손실된 지점을 뜻하죠. 이 검은 공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눈으로는 식별이 가능하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모순된 공간이죠. 예를 들어 20세기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점선으로 그린 도형을 봤을 때 그것을 온전한 도형으로 인지한다는 점을 발견했죠. 실제로는 점선이지만 그 사이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워 넣어서 전체적인 형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점 사이는 검은 공간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빈 공간에 점을 이어서 전체적인 형상으로 인지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는 이 점들은 개인이 사공간과 맺는 관계성을 단순하게 시각화한 것이예요.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은 비정보,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점이 찍힌 공간은 정보죠. 관람자 입장에서는 작품을 볼 때 비정보와 정보의 간격을 끊임없이 메워야 하다 보니 그 메우는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이 가진 이해나 경험, 지식이 모두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개인이 인지하는 그림의 형상은 조금씩 다르게 되고요.

세상에는 정답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복수성(plurality)을 내 작업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타인에 의해 투사된 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인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흰 점과 검은색 공간을 통해 표현하려 했어요. 프랑스 철학자 에두아르 글리상은 "사람들은 타인이 제멋대로 투사한 이미지에 갇혀 있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란 말을 했어요. 제 작업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머문 경력이 눈에 띄어요. 당시에 1788년 최초로 호수에 정착했던 영국 선박의 유물을 연구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작업이었나요? :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진화론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 원주민들이라고 언급해요. 서구 열강의 연구자들은 호주 원주민들이 인류 진화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자신의 연구를 위해 호주에서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그 뼈를 컬렉션으로 가져왔어요. 런던 자연사박물관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수집된 호주 원주민의 뼈가 약 300구 이상이 소장돼 있어요.



©2021 한국문화재단

나는 내 선조들의 뼈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사박물관에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신청해서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컬렉션들을 연구하면서 이를 통해 오늘날 박물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과거 계몽주의 시대의 박물관과 오늘날의 박물관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기하려고 했죠.

영국은 비단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체의 시신을 컬렉션으로 가져왔어요.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의 뼈만 보게 되는데 그 지하 수장고에 수많은 인체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하겠죠.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지하수장고에 파묻혀있던 시신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도록 문제를 제기했죠. 박물관 측에도 그들이 그 컬렉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구요. 이진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사안이잖아요. 물론 내가 박물관에 있는 동안 이것저것 묻혀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니 동조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의 불편한 시도가 박물관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 컬렉션들은 과거 호주에 처음 정박했던 영국 선박이 실어서 가져온 건데 호주 원주민 출신인 내가 수백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영국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찾아냈죠. 그렇게 나만의 관점으로 호주의 유물들을 연구하고 세상에 선보이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관점이 포개진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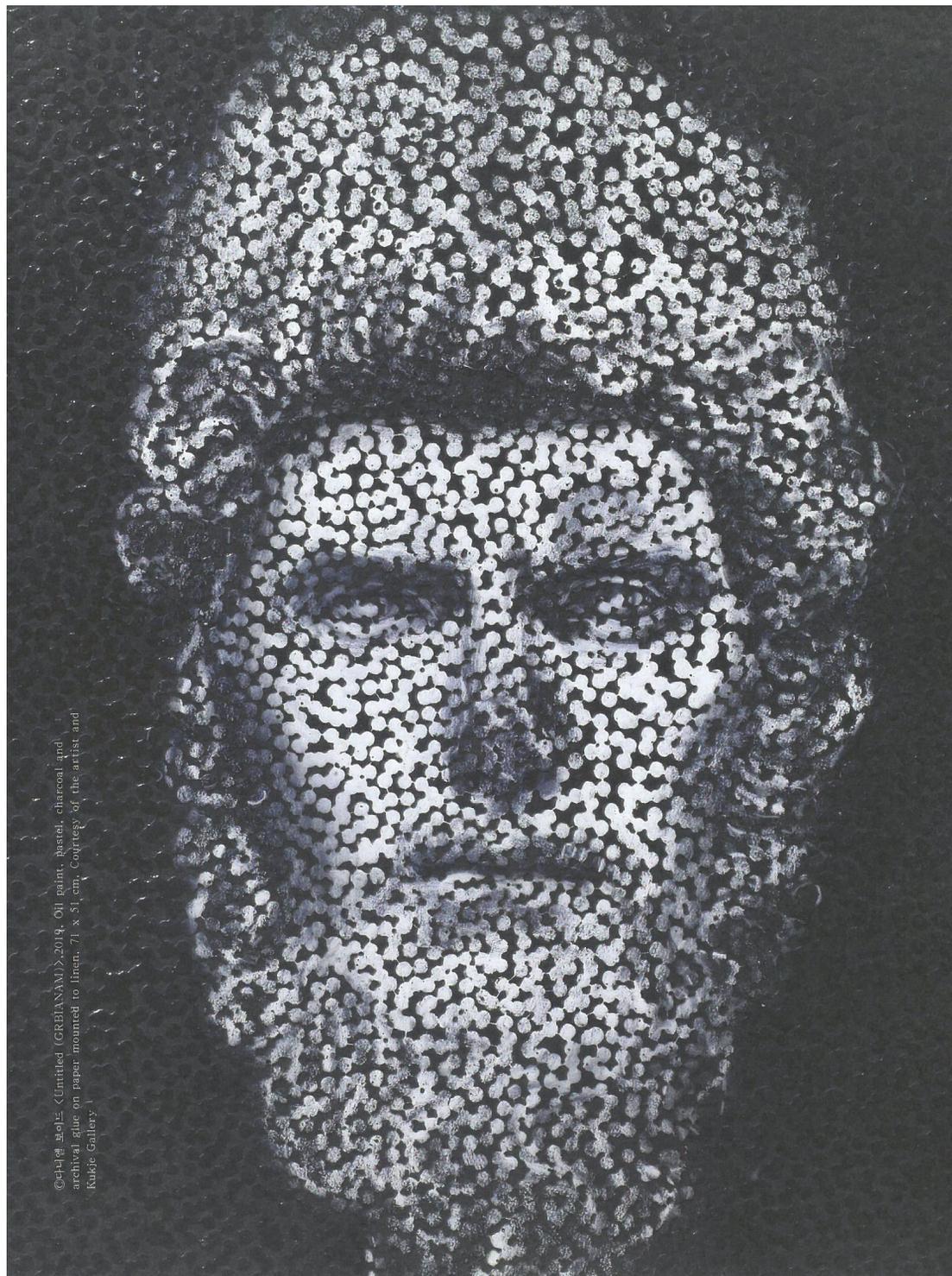
당신의 선조인 킹 샌디의 사진을 직접 회화로 옮긴 작업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시신의 권력이 작용하잖아요. 처음 영국 과학자들이 인류학적인 사료로 남기기 위해 호주 원주민인 킹 샌디의 사진을 찍을 때는 이방인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지배적인 시선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후손인 당신이 다시 회화로 그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복원하고 싶었나요? :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대상과 거리를 두려고 해요. 나는 그런 거리 두기를 허용하고 싶지 않아 그 작업에 저의 개인적인 역사를 포함시켰어요. 킹 샌디는 내 조상 중의 한 명이죠. 이런 개인사가 내 회화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사되면 관객들은 그 대상을 부인하거나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요. 회화 속에서 킹 샌디는 객관적인 연구대상이나 사료가 아니라 내 개인사가 투영된 선조이거든요. 나는 꾸준히 미의 관점을 두고 다양하게 변주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킹 샌디의 사진을 회화로 다시 그림으로써 주체적인 해석을 담으려고 했어요. 킹 샌디의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 그것은 인류학자들의 단순한 자료였지, 아름다움을 담으려는 사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나만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회화작품으로 그의 초상을 완성함으로써 주체적으로 해석 한 것이죠.

결국 내 작업의 핵심은 우리가 우주와 맺는 관계성, 우리가 타인, 대상과 맺는 관계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열려있는지를 일깨우고자 하는 것어요. 내가 회화라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개개인은 내가 만든 공간에 들어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그 대상과 관계맺기를 하면서 변화하죠. 그렇게 예술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게 소통의 형태이자 내가 존재하는 방식, 내 삶 그 자체였습니다.



©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is derived from the original work of the artist, and is reproduced here with permission.



©다미엘 보아노 <Untitled (GRIBANAMI)>, 2019. Oil paint, pastel, charcoal and archival glue on paper mounted to linen, 71 x 51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de Gallery.